

서운영의 '집과 사람'



주택은 시대의 거울

지금으로부터 거의 백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급격한 문화변동의 시기였던 1920~30년대 개화기에 문화주택이 유행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여서 문화주택 역시 본래는 일본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었지만, 조선의 중상류 사회에서 빠르게 유행하면서 선풍의 주택이 되어 갔다.

그런데 주택을 살펴보면 각 방들의 명칭이 서재, 응접실, 침실, 주부실, 아동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과는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5개의 방이 있는 집이라면 지금의 중대형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인데 그 구성은 사뭇 다르다. 그것은 가장의 시각에서 구성된 주택이다.

자신이 낮에 머무르는 서재, 밤에 잠을 자는 침실,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 그리고 아내의 방인 주부실과 자녀들을 위한 아동실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자녀는 한 집에 대개 서너 명은 되었는데 아동실은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모두 한 방을 썼다는 말이 된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나마 이것은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경우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주택은 철저히 남성 가정의 시

각에서 계획되었고 여기에 아내를 위한 방을 하나 마련해 주면 족했다.

아동이라는 개념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19세기 무렵이고 그 이전까지 아동이란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방을 별도로 두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했다.

그리고 해방 후 급격한 경제성장의 시기이던 1960년대부터 주택의 모습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의 구호 아래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면서 주택 역시 4인 가족을 모델로 계획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급속히 보급되던 때이기도 했다. 부부와 2명의 자녀에게 각자 방을 주기 위해 3개의 침실이 있는 85m2의 아파트가 국민주택이라 불리면서 전파됐다. 또한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친밀도가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가족단리행위'라는 것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이고 바로 그 가족단리를 위한 장소로서의 거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 쯤이다. 즉 1920~30년대 가정이 손님을 맞이하던 응접실이 1960~70년대에 이르러 가족단리를 위한 거실로 변화하고 한 집에 하나이던 아동실은 이제 자녀 개인에게 독방을 주는 것으로 변화했다.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고 각자에게 독방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주택은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자녀의 수는 더욱 줄어 외동아이인 경우도 많은데, 3개의 침실 중 아이가 침실 두 개를 쓰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아이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집도 있다.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작은 방안에 침대와 책상이 함께 있다 보니 옷과 책이 뒤엉켜 정리가 안 된다. 공부에 집중하려고 잠 자는 방과 공부하는 방을 따로 분리해 주게 된다.

요즘 대부분 자녀수가 줄어 외동아이 가 되고 보니 그 아이에게 더욱 확실한 투자를 하기 위해 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 교육비를 벌기 위해 부부는 맞벌이를 해야 한다. 부부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다 보니

가장 좋은 안방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아이에게 할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점차 경쟁이 치열화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는 가장 든든한 자원이자 할 수 있는 학력자원을 취득해야 하고 그러자니 공부를 위한 별도의 방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여 요즘 주택은 새로운 사용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부와 외동이 자녀로 구성된 3인 가족이 3개의 침실이 있는 85m2의 국민주택에 살면서 어른 둘이 방 하나를 함께 쓰고 아이가 방 두 개를 쓰는 집이 늘고 있는 추세다.

백여 년 전의 문화주택을 보면 가장은 침실, 서재, 응접실을 쓰고 아내는 주부실을, 서너 명은 되었을 자녀들은 아동실이라는 방을 공동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 방을 쓰고 아이들은 모두 한 방을 썼단 말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른 두 명이 작은 방 하나를 함께 쓰고 아이가 공부방과 침실을 따로 쓰는 이 현상을 100년 전 개화기의 사람들이 보면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이처럼 주택은 그 시대를 가장 민감하게 비추고 있다. <건축칼럼리스트>

종교칼럼

상선약수(上善若水)



일선 정흥 보림사 주지

정마가 끝나고 나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대야를 피해 물을 찾아서 산으로 바다로 도시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물이 귀한 계절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물의 성품은 맑고 투명하여 일체 대상을 차별하지 않아 끝내는 양변의 시비를 물리치고 바다에 이르러 일미의 짙맛으로 화합하여 다름을 융합하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는 달마 대사의 이입사행(二

入四行)의 수행문 가운데 구경의 행을 수연행(隨緣行)이라고 합니다. 물은 일체 대상을 대하여 인연을 따르지만 머물지 않고 대상과 하나가 되어 시비가 끊어지고 끝내는 일심의 바다에 이르러 삼라만상을 차별 없이 비추는 해인삼매(海印三昧)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갈모수 병을 들고 있어 번뇌의 열병에 찌들어 고통스러운 중생들에게 갈모수를 머리에 부어서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의 불꽃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불기운이라서 서로 부딪치면 머리에 오르고 심해지면 온몸으로 번져서 죽는 사람도 있으니 이것이 스트레스라는 현대인의 병입니다.

그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금방 불기운은 아래배로 내리고 불 기운이 머리에 오르는데 이것을 수승하강이라 하

여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또한 서로 참고 용서하면서 마음을 명경지수처럼 맑히면 세상의 시비인 스트레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처럼 세상의 흐름을 따르되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 언제나 편안하여 지혜와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병이 생기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그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 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병이 찾아오고 그 물을 충분히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고 하여 어느 과학자는 물이 만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물을 떠놓고 시끄럽고 사나운 음악을 들려주니 물의 결정체가 찌그러져 아름답지 못하고, 조용하고 성스러운 음악을 들려주면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물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름다운 말

로 칭찬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좋은 관상으로 얼굴을 바꿀 수 있을 것 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세계는 물부족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흘러가는 물도 함부로 쓰면 덕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 다. 일상사에서 항상 물을 아끼는 습관을 길들여야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물 축제는 최우수 지방자치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해마다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인연으로 이러한 물의 지혜와 덕을 배워서 항상 맑고 청정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그럽고 운택한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가운데 있는 물을 잘 다스리면 올 여름뿐만 아니라 평생 더위 먹지 않고 편안한 것입니다.

날이 덥네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 바랍니다.

社說

지역주의 철옹성 뚫은 순천·곡성 주민들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졌다. 지난 1988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이후 광주·전남에서 새누리당 계열 간 판으로 첫 국회의원인 되는 '선거혁명'을 이뤄냈다.

이 후보의 당선은 아권의 심장이자 텃밭인 전남에서 오랜 지역구도를 깨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가 지난 6·4 대구시장 선거에서 남지 못한 영호남 지역주의의 벽을 이 당선자가 마침내 뛰어넘은 것이다.

이정현 후보의 당선 원동력은 무엇보다 순천·곡성 주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인 데 있다. 1995년 광주시의원 선거, 2004·2012년 총선에서 잇달아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타파를 내세우며 3전4기의 도전에 나선 그의 의지를 인정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이 후보가 당선된 만큼 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한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저해선 안 될 것이다. 영

남지역민들 역시 호남이 먼저 내민 지역주의의 타파를 겸허히 새겨야 한다. 이정현 당선자도 선거기간 주민들에게 밝힌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한편으로 새정치연합의 11대4 참패를 보는 호남사람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텃밭인 새정치연합이 그 후폭풍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31일 김한길·안철수 대표의 동반 사퇴와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계 은퇴 선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존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완패한 것은 이번만 민심을 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차버렸다.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원칙 없는 둘러막기 및 전략공천 등 '참사'로 패배를 자초했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야당답게 제대로 싸우는 투쟁력도, 대안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박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번 선거의 의미를 곱해해서는 안 된다. 승리의 자만으로 세월호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고,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서게 돼 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에 매진하려는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새겨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 인증·관리 보다 철저히 해야

수년 전 전남지역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친환경농업으로 인증해 주었던 기관이 검찰에 단속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A군에서는 부단 재정이 인사고과 때문에 친환경 면적을 부풀려 보고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아직 이러한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불신을 사고 있다. 올 상반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수가 지난해 말 대비 17%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부실 인증을 한 민간기관이 지정 취소되고 농약 사용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대거 적발된 탓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를 봐도 그렇다.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논에 제초제나 화학

비료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농가는 3753곳에 달했다. 전체 인증농가 12만 5100 농가의 3%에 해당한다. 광주·전남에서도 전체 인증농가 중 4.3%에 이르는 1825호가 인증 취소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 농가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또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하지 않아 불신을 사고 있다. 올 상반기 친환경 3개 기관이 적발됐다.

친환경농업은 소비자 건강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은 농사를 선진 농법을 지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당국 역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친환경농업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배우 전도연에게 칸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 '밀양'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밀양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비밀 밀(密), 별양(陽), 비밀스러운 햇볕. 좋죠?". 영화의 영어 제목은 'Secret Sunshine'이었다.

이창동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양'은 이정준의 '벌레 이야기'가 원작이다. 남편을 잃은 서른 세살 여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향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절대자와 용서, 구원 등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이 작품에서 '밀양'이라는

최근 영화 '곡성' 제작 소식이 전해졌다. 시놉시스에 따르면 '곡성'은 전남 곡성의 마을에 한 일본인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쫓는 경찰과 그를 돕는 무속인의 이야기다.

메가폰을 잡은 이는 500만 명을 동원한 '추격자'를 만든 나홍진 감독. 무속인 역은 연기파 배우 황정민이 맡았으며 행사 역으로는 '변호인', '황해' 등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광도원이 낙점됐다. '씨니'에서 조연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뒤 '한공주'에서 눈도장을 지غ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곡성

지난 6월 개봉한 장물 감독의 '경주'는 전년 고도 경주가 배경이다. 한국을 찾은 북경대 교수가 문득 7년 전 보았던 한 여자의 기억을 찾아 경주 여행을 떠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박해일과 신민아가 주연을 맡은 영화에는 경주의 찾빛 아리술과 보문 호수, 고분능 등 경주의 이곳 저곳이 등장한다. 유준상·김상중이 주연을 맡았던 흥상수 감독의 '북촌 방학'에는 서울 북촌의 여러 풍경이 담겼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기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와 대한민국 '광주'



이경운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 에든버러. 인구나 도시 규모는 상공업이 발달한 글래스고가 더 크지만,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관광의 중심지다. 멜 깰슨이 감독, 주연한 영화 '브레이크 하트'의 실존 모델인 윌리엄 월레스(William Wallace)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곳의 인구 45만명은 여름만 되면 2~3배로 늘어난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축제인 인터내셔널 페스티벌과 프린지 페스티벌의 경우 대략 25일간 2000개가 넘는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진다. 공연 횟수는 3만 회가 넘으며 60여 개국 2만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한다고 한

다. 1947년부터 시작된 이 페스티벌의 유명세는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에든버러를 축제의 도시로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에서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색이 유트고 있다. 광주월드뮤지페스티벌 이야기다. 아시아를 넘어 광주를 세계적인 음악축제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시작된 월드뮤지의 향연은 올해 5회째. 한국의 전통음악과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이 만나는 허브이자 한국 음악이 해외로 진출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월 완공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에서 월드뮤지의 축제가 열리게 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15년 개관 예정인 문화전당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가 열리는 건 2005년 착공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그 동안 광주월드뮤지페스티벌은 서구(포암생활체육공원), 광산구(쌍암공원), 북구(전남대학교), 남구(빛고을 시민문화관) 등 동구를 뺀 광주 전역을 돌아

다. 문화전당 공간 중 이번 페스티벌에 활용되는 곳은 안전이 확보된 문화창조원 옥상 잔디 광장(6800㎡)과 계단식 광장(문화창조원과 예술극장 야외무대 사이)이다.

월드뮤직은 음악의 한 장르로 단순 정의하기 어렵다. 팝·클래식·ROCK 등 익숙한 음악장르와도 다르다. 주요 키워드는 정체성과 정신이다. 각 민족, 각 나라의 민속음악처럼 삶의 양식과 문화가 녹아있어야 한다. 브라질의 보사노바, 아르헨티나 탱고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에서 월드뮤지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광주가 문화전당을 통해 문화중심 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월드뮤지페스티벌은 아시아와 제3세계 문화를 한데 모아 서로 교류하고 향유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월드뮤지페스티벌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문화전당은 문화예술의 창조, 연구, 교류, 교육 및 향유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창조원·예술극장·민중평화교류원·어린이문화원·아시아문화정보원 등 5개원이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곳이다. 세계적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과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 등의 핵심 전진기지가 될 문화전당과 월드뮤지의 만남은 광주가 에든버러와 아비뇽 등 세계적 문화·축제의 도시로 성장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에든버러와 광주는 닮은 점이 많다. 에든버러 축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척박해진 유럽의 휴머니즘을 회복시키고자 시작됐다고 한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시조였다. 문화전당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과 장소성이 강한 옛 전남도청 일대에 조성되고 있다.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창조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문화전당이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것도 월드뮤지페스티벌을 통해서다. 문화전당과 월드뮤지, 그리고 광주. 세계적 문화공연 도시를 향한 첫 단추는 꿰어졌다.

8월 마지막 여름밤, 월드뮤지의 축제장으로 변신한 문화전당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